엠다파정 10밀리그램 (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)

엠다파정 10밀리그램
(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)
MDP-2211-00

McNulty 백넬티제약

엠다파정 10밀리그램 (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) M-dapa Tab. 10mg (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)

전문의약품

[원료약품 및 그 분량] 1정 중
• 유효성분 :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(별규) ····· 12.3mg(다파글리플로진으로서 10mg)
• 첨가제명칭(안전성) : 유당수화물(Ph. 유럽)
• 기타 참가제 :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, 스테아르산마그네슘,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, 코팅비드, 탐폴리스코린백(70%S)

[성상] 노란색의 양면이 볼록한 다이아몬드형의 필름코팅 정제

[효능·효과]
제2형 당뇨병: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.

– 단독요법, 병용요법
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되었거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병에 대한 영향은 '사용상의 주의사항 11. 전문가를 위한 정보 3) 임상시험 정보'를 참고한다.

[용법·용량]
제2형 당뇨병
단독 요법 및 추가 병용 요법
이 약의 권장 용량은 단독 요법 및 인슐린 등 다른 혈당 강하제와의 추가 병용 요법에 대하여 1일 1회 10mg이다. 이 약을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와 같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, 저혈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용량의 인슐린 또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고려할 수 있다.

초기 병용요법
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 서 이 약의 초기 권장용량은 1일 1회 5mg 또는 1일 1회 10mg이다.
특수 집단
신장애
– eGFR 45 mL/min/1.73㎡ 이만 : 혈당조절 개선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.
– 투석 중인 환자 :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.
간장애: 경증 또는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.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하여, 시작 용량으로 5mg이 권장된다. 내약성이 양호한 경우, 이 용량은 10mg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.
고령자 (≥ 65세): 연령에 근거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.
소아: 만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다파글리플로진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. 근거 자료가 없다.
투여방법: 이 약은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, 1일 1회 하루 중 언제라도 경구 투여할 수 있다. 정제는 통째로 삼켜야 한다.

[사용상의 주의사항]
1.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
1)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대한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
2)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
3)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며, 갈락토스 불내성(galactose intolerance),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(Lapp lactase deficiency) 또는 포도당-갈actose 흡수장애(glucose-galactose malabsorption)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.
4) 투석 중인 환자

2.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
1) 케톤증 감소 및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투여
이 약은 중성지방 저하작용이나 크레아티닌의 급격하고 일시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자체를 유발할 수 있다. 외국의 시판후 조사에서 이 약을 포함한 SGLT-2 저해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 신장손상이 보고되었으며, 일부는 입원과 투석을 필요로 하였고, 신기능 장애(eGFR 60mL/min/1.73㎡ 이만), 고령자, 루프계 이뇨제 동용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혈압 저하 또는 저혈압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.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환자에 대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상태 및 상태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, 투여를 시작한 후 지속적인 검사 및 징후와 증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. 또한 조절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은 신장 기능에 따라 다르다.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혈당 조절 유효성이 감소하여 eGFR 45mL/min/1.73㎡ 미만인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혈당조절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(별첨 : 용량 및 참조).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 에서, 이 약을 투여한 피험자들은 위약을 투여한 피험자들에 비해 크레아티닌, 인 부갑상샘 호르몬(PTH)에 상승 및 저혈압의 발생률이 높았다. 이 약은 eGFR 25mL/min/1.73㎡ 미만인 환자에게 투여를 시작한 경험이 없다(별첨 : 용량 참 참조).

3) 특정 임상연령에 대한 설명
① 외음부염증, 귀두염 및 관련 생식기 감염
임상시험 약간조절군인의 안전성 통합 자료에 따르면 외음부염증, 귀두염 및 관련 생식기 감염은 이 약 10mg 및 위약을 투여한 피험자의 각각 5.4%와 1.8%에서 보고되었다. 대부분의 감염은 경증 내지 중등도였고, 피험자들은 치료의 끊은 치료에 반응하였으며, 이 약 투여 중단율 이하였 경우는 드물었다. 이러한 감염들은 여성에서 더 흔하였고, 과거 병력이 있는 피험자들은 재발성 감염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았다. DECLARE 임상시험에서 요로감염의 증가를 이상시키는 다파글리플로진 10mg 투여군에서 각각 (0.2%) 보고되어 위약군의 10회(1.3%)보다 빈도가 낮았다. DAPA-HF 임상시험에서 요로 감염의 증가한 이상시키를 것은 환자 수는 적고 양 군 간에 큰 차이 없이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9명 (0.8%), 위약군에서 7명 (0.7%)이었다. 요로감염의 이상시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다파글리플로진군과 위약군 각각 5명 (0.2%)이었다. DAPA-CKD 임상시험에서 요로감염의 증가한 이상시키를 것은 환자 수는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29명 (1.2%), 위약군에서 18명 (0.8%)이었다. 요로감염의 이상시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3명 (0.1%)이었고 위약군에는 없었다. 생식기 감염의 이상시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3명 (0.1%)이었고 위약군에는 없었다. 생식기 감염의 이상시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3명 (0.1%)이었으며 위약군에는 없었다.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 생식기감염의 증가한 이상시키 및 치료 중단으로 이어진 이상시키는 보고되지 않았다.

② 저혈당
당뇨병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저혈당의 빈도는 각 시험에 사용된 기저 요법의 종류에 따라 차이있었다. 이 약의 단독 투여, 메트포르민 혹은 시타글립틴(메트포르민 단독 혹은 병용)에 대한 추가 병용 연구에서 경미한 저혈당 이벤트의 빈도는 위약 투여군과 유사하였다. 설포닐우레아 추가 병용 연구에서 경미한 저혈당 이벤트의 빈도는 이 약 투여군과 위약군 간에 동등하였다. 설포닐우레아 추가 병용 연구에서 저혈당 발생률이 더 높았다. 글리메피리드 추가 병용 연구에서 24 주와 48 주까지, 경미한 저혈당 에피소드의 이 약 10mg 및 글리메피리드 병용 투여군(각각 2.1%, 7.9%)에서 위약 및 글리메피리드 병용 투여군(각각 2.1%, 2.1%)에 비해 더 빈번하게 보고되었다. 인슐린 추가 병용 연구에서 주요한 저혈당 에피소드는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이 약 1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 104주에서 각각 0.5%, 1.0% 보고되었고,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 104주에서 0.3% 보고되었다. 경미한 저혈당 에피소드는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이 약 1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 104주에서 각각 40.3%, 53.1% 보고되었고,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, 41.6% 보고되었다.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 에 대한 추가 요법 시험에서, 24주까지 주요 저혈당과 에피소드가 보고되지 않았다. 경증 저혈당 에피소드가 다파글리플로진 10 mg +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 투여 시험대상자의 12.8%와 위약 +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 투여 시험대상자의 3.7%에서 보고되었다. DECLARE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다파글리플로진 요법이 주요 저혈당 사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주요 저혈당 사건은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58명 (0.7%), 위약군에서 83명 (1.0%) 보고되었다. DAPA-HF 임상시험에서 주요 저혈당 사건이 다파글리플로진군과 위약군 각각 4명 (0.2%) 보고되었으며 제3형 당뇨병 환자에서만 나타났다. DAPA-CKD 임상시험에서 주요 저혈당 사건이 다파글리플로진군에서 4명 (0.1%), 위약군에서 2명 (1.3%) 보고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만 관찰되었다.

③ 케톤증
임상시험 1건으로부터의 안전성 통합 자료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사한 일찍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케톤산증 보고가 확인되었다. 이 약은 치료받은 환자에서 케톤산증과 관련하여 시험자 서비가 보고된 바 있다. 혈중산성이 250mg/dL 보다 더 낮았다. 이 약을 관련된 케톤산증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고 이 약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중증의 대사성 산증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혈장 수치와 관련하여 크게 보고되었다. 대부분의 케톤산증 환자들은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하고 혈관의 상태를 평가하고,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. 케톤산증의 치료는 인슐린, 체액, 그리고 탄수화물 보충을 필요로 할 수 있다. 많은 시판 후 보고에서,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, 케톤산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약의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수술에 대한 정보가 없다. 케톤산증의 증상과 징후는 갈증 증증의 대사성 산증과 일치해 나타날 수 있다. 케톤산증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250 mg/dL 이만이도 낮았기 때문에, 케톤산증의 증상과 징후는 혈당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. 위험 요인으로는 인슐린 결핍이 있는 환자, 칼로리 섭취 감소, 탈수 증상, 알코올 남용의 병력이 있다.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 인슐린 분비 감소, 칼로리 제한, 알코올 남용을 포함한 케톤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요인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.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케톤산증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, 케톤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임상적 상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.